

# 근대초기 여성교양의 성립과 파트너십 문화론의 계보

김복순\*

## 차 례

1. 새로운 문화론의 계보 형성: 여성교양과 페미니즘 파트너십
2. 여성교양의 내적·외적 형식의 차이와 담론관계성
  - 2.1. 남성젠더의 여성교양
    - : 남성 중심적 보편성 하의 긍정적 특수성 인정
    - 2.1.1. 젠더화 되는 여성교양과 지식
      - : 어린이 교육주체, 가정관리자로서의 여성교양
    - 2.1.2. ‘제국주의적 자기’의 기부장적 감각과 आयु(我有)
  - 2.2. 여성젠더의 여성교양
    - : 부정적 특수성에서 새로운 보편성의 추동
    - 2.2.1. 능동적 타자의 핵심 문화자본으로서의 여성교양과 분유(分有)
    - 2.2.2. 파트너십 문화형식과 초대어 수사학(invitational rhetoric)
3. 맺는말

21세기는 리더십이 아닌 파트너십을 요구한다. 리더십이 ‘중심’적 보편성(지배자 중심, 부르주아 중심, 남성 중심, 이성 중심, 일국적 지식 중심 등)에 입각해 있다면, 파트너십은 중심적 보편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보편성 구성을 추구한다. 21세기의 대안적 패러다임은 젠더 불평등 관계성을 해체하는 방법론이어야 하며, 그것은 파트너십이어야 한다.

\* 명지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파트너십 문화론의 계보 중 하나는 페미니즘 인식론을 이념적 토대로 하고, 여성교양을 핵심 문화자본, 상징자본으로 삼아 새로운 보편성 구성의 파트너십을 창출하는 패러다임이다.

교양(culture, Bildung)은 사회의 동력으로서 사회 구성원이 갖는/요구되는 힘이지만, 서구의 근대적 교양개념에 여성젠더가 소거되어 있다는 점에서, 페미니즘 시각으로 교양/여성교양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젠더 불평등 상황 및 구조, 젠더의 배치과정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젠더장치가 역사적 시대적 국면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세계사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이 있고, 또 젠더별 시선의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남성/여성 젠더별 여성교양의 내적·외적 형식으로 나누어 각각의 담론관계성을 검토하였다.

근대초기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이 남성 중심적 보편성 하의 긍정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여성젠더의 여성교양은 부정적 특수성에서 새로운 보편성을 구성하는 원동력이었다.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은 ‘생활’에 필요한 보통 지식과 기능, 부덕순철 등이며, 가정 내적 존재로 한정하여 가정관리자 및 감독자로서의 여성, 어린이교육 담당자로 제한하였다. 이는 남성 중심적 보편성 하에서 여성의 긍정적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방향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교양과 지식은 젠더화 되었으며, 남성교양과 지식의 보편성을 획득해 주는 타자였다. 남성젠더는 ‘제국주의적 자기’로 ‘남성으로의 재 젠더화’를 도모하였고, 트릭클 업(trickle-up)의 방식을 취하였다.

19세기 말 한국 사회에는 능동적 타자로서 인식주체, 자각주체, 실천주체로 주체형성을 도모하는 ‘새로운 여성 인간형’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중세적 교양으로 함의되어 왔던 ‘부덕’의 개념을 재배치하며, 동시대 남성젠더의 ‘현모’ ‘현모양처’ 형식과 다른 주체형성을 도모하였다. 여성젠더의 사회적 인식은 젠더, 민족, 인종, 국가 별로 부정적 특수성 하에 놓여 있는 여성의 위치성을 확인시킨 후, 이러한 부정적 특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성교양을 수단으로 새로운 보편성 범주를 설정하고자 추동하였다. 이들은 국민주체보다 여성주체를 우선성으로 하였으며, 남녀동등권이 핵심이었다.

여성젠더의 새로운 보편성 추동은 부인회, 토론, 연설, 독자투고, 상소, 재판

등의 파트너십 문화형식을 낳았는데, 이들은 '초대의 수사학이라는 독특한 수사학을 보여 준다. 상호교류의 참여양식으로서 초대의 수사학은 그들이 채택한 파트너십 전략 중 하나였다.

핵심어 : 파트너십 문화론, 새로운 보편성, 여성교양, 어린이교양, 긍정적 특수성, 부정적 특수성, 젠더화 된 일상, 제국주의적 자기, 분유, 아유, 찬양회, 능동적 타자, 초대의 수사학, 페미니즘 수사학

## 1. 새로운 문화론의 계보 형성: 여성교양과 페미니즘 파트너십

21세기는 리더십이 아닌 파트너십을 요구한다. 리더십이 수직적 질서 및 각종 이분법에 근거하여 이항대립적인 지배-종속관계를 창출하는 구조에 기초해 있다면, 파트너십은 이러한 이분법을 제거하고 수평적 연대감과 상호 협력관계에 바탕해 새로운 상생문화를 건설하고자 한다. 리더십이 '중심'적 보편성(지배자 중심, 부르주아 중심, 남성 중심, 이성 중심, 일국적 지식<sup>1)</sup> 중심 등)에 입각해 있다면, 파트너십은 중심적 보편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보편성<sup>2)</sup> 구성을 추구한다. 또한 이들이 각각 불러일으키는 감성적 차원의 파토스도 달라서 전자의 경우 의리, 복종, 충성 등의 정서가 뒤따른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친밀감, 연대, 우정 등의

1) 일국적(一國的) 지식이란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식과 학문을 말한다. 고야스 노부쿠니, 김석근 옮김, 『일본근대사상비판 일국적 지식의 성립』, 역사비평사, 2007.

2) 새로운 보편성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서언, 15~25쪽; 『페미니즘 미학의 기본 개념과 방법』, 『여성문학연구』, 제15집, 2005, 167~200쪽; 『페미니즘 시각과 리얼리티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제32호, 2006, 243~282쪽 참조.

정서가 뒤따른다. 즉 리더십과 파트너십은 그들이 의존하고 동원하는 이성과 감성의 체계가 다르다.<sup>3)</sup>

기존의 리더십 개념이 남성중심성 및 가부장적 사회체제에 간혀 있다는 점에서 젠더 관계성은 리더십의 핵심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대안적 패러다임은 이러한 젠더 불평등 관계성을 해체하는 방법론이어야 하며, 그것은 리더십이 아닌 파트너십이어야 한다. 파트너십 문화에도 이와 같이 범주별로 다양한 갈래가 가능하고, 젠더 범주를 핵심으로 하는 문화론에도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노사간 파트너십, 교수-학생간 파트너십, 국가 간 파트너십이, 후자의 예로는 페미니즘 문화론 중 ‘여성주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문화론<sup>4)</sup>이 있다.

젠더 관계성에서 볼 때, 젠더 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즘 시각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가능케 하는 방법론이다. 페미니즘 시각에 기초해 새로운 보편성을 구성하고자 하는 파트너십은 페미니즘 파트너십이라 언명할 수 있다. 이항대립적, 이분법적 질서 하에서도 ‘하위 파트너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젠더 불평등 관계성에 입각한 파트너십은 페미니즘 시각에 기초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페미니즘 파트너십은 남성중심적으로 전유된 기존의 어떤 리더십 유형과도 차별성을 갖는다. 리더의 젠더나 계급, 인종, 계층 등의 범주를 이항대립적으로 사유하고 전유하지 않으며, 모든 억압적, 수직적 질서를 극복하는 평화적·상호 협력적 사회를 지향하는 변혁성을 지닌다. 페미니즘 파트너십은 사회구조 및 질서의 쌍방성과 수평성에 기초한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다양성, 탈

3) 리더십과 파트너십은 젠더 간(남녀, 부부 등), 노사 간, 교수-학생 간, 국가 간, 문화 간 등 사회관계성에서 비롯되는 여러 관계에 모두 가능할 수 있다. 어느 경우건 노사 간에서는 계급 범주가, 교수-학생 간에서는 계층 범주가, 국가 간에서는 국가 범주가, 문화 간에서는 종족·민족·사회 범주가 우선성이라 할 수 있다.

4) 윤혜린 외, 『여성주의 리더십』, 이화여대 출판부, 2007. 참조.

중심성, 탈위계성의 차원에서 기존의 이분법적 요소들과 연대하는 실천성을 강조한다. 페미니즘 파트너십은 차이를 보존하면서 보편성을 생산하는 전략이기에, 차이를 통해 차이를 재생산하는 기존의 리더십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생산/재생산하며, 다른 사회질서를 구축한다.

문화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기존의 문화론과 상이한 문화론의 계보 창출을 가능케 한다. 젠더 관계성을 대상으로 논의할 때 새로운 문화론의 계보에서는 여성교양이 핵심 문화자본이자 원동력이다. 즉 파트너십 문화론의 계보 중 하나인 페미니즘 파트너십 문화론은 페미니즘 인식론을 이념적 토대로 하고, 여성교양을 핵심 문화자본, 상징자본으로 삼아 새로운 보편성 구성의 파트너십을 창출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파트너십 문화론이 조직적 형태로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된 것<sup>5)</sup>은 1890년대이다. 19세기 후반은 사회적 모순을 비롯한 대내외적 위기가 역동적으로 분출하면서 사회 구성원 사이의 갈등과 혼란이 극심했던 시기였다. 이 피할 수 없는 변화의 국면에서 젠더 불평등을 지적하고 여성교양을 문화자본으로 삼아 파트너십을 기획하였던 것이 새로운 파트너십 문화론의 시동이었다. 1890년대는 여성교양과 관련한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하나의 시발점으로 위치한다.

5) '조직적 형태'가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새로운 보편성 구성에의 추동 및 이와 관련한 성찰은 이미 17세기 임윤지당에서도 드러난다. '이기심성론'을 통해 임윤지당은 여성이 본성적 측면에서 남성과 동일하며, 여성도 남성처럼 성인의 말씀을 배워 수양하면 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혜순, 『여성담론으로서의 임윤지당의 이기심성론』, 『고전문학연구』 제26집, 321~353쪽). 이는 도덕군자가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유가적인 은유를 넘어설 수 있는 성찰의 계기를 주었다(김미영, 『성리학에서 대두된 '공적 영역'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철학연구』 제29집, 389~415쪽)고 평가된 바 있다. 필자는 임윤지당의 이기심성론에서 '새로운 보편성의 추구'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교양(culture, Bildung)은 ‘사회 구성원이 사회의 동력으로서 갖는/요구되는 힘’으로서, 자질, 덕성, 능력 등의 내적·외적 형식 및 가치를 말한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할 때, 여성교양은 여성이 사회의 동력으로서 갖는 내적·외적 형식 및 가치를 의미한다. 모든 이념에는 내적 형식과, 그것이 물질적 변화와 맞물려 표출되는 외적 형식의 양 측면이 있는데, 교양 개념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서구에서 ‘근대적 교양’ 개념은 이전 계급사회의 ‘신분’ ‘혈통’ 또는 ‘종교’의 대체물이었다. 서구에서 중세적 교양<sup>6)</sup> 및 지식의 대상은 ‘신’이었으며, 조선시대의 경우 그 대상은 ‘가’ 및 ‘가’와 연결된 ‘국’이었다.

그런데 서구의 근대적 교양개념이나 조선시대의 중세적 교양 개념, 그리고 서구의 교양 개념이 의존하고 있는 ‘개인’, ‘교양의 일반화’에는 여성젠더가 소거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근대적 교양 개념에는 부르주아적 속성과 체제순응적 속성<sup>7)</sup> 및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기규제적 성격이 지배적으로 함유되어 있다. 이놀드는 ‘계급적 이해 관계를 벗어난 최상의 자아(사심 없음의 경지)’를 이루기 위해 교양을 획득해야 하며, 일상적 자아 상태에 있는 중간계급이나 노동계급이 교양을 획득하지 못하면 사회는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sup>8)</sup> 이때 교양은 각 개인의 자기규제적 성격을 떠며, 경우에 따라서는 권위

6) 교양 개념이 ‘근대’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서구의 근대’중심주의적, 오리엔탈리즘적 발상이라 판단된다. 서구의 교양 개념이 ‘서구-근대-개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면 타당할 수 있지만, 교양 개념이 반드시 서구-근대의 ‘개인’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양 개념이 ‘사회 구성원이 사회의 동력으로서 갖는/요구되는 힘’으로 정의된다면, ‘개인’ 개념에 입각하지 않은 ‘교양’ 개념도 상정할 수 있다. 성리학은 ‘개인’ 개념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나’ ‘주체’의 문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상정했던 철학이다.

7) 교양에 해당하는 culture가 colony와 동일한 어원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 준다.

8) 『야만인, 속물, 우중』, 『교양과 무질서』, 한길사, 2006, 118~152쪽 참조.

와 동일시되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동일시되어<sup>9)</sup> 국가를 국민 전체의 완성의 대행자로 천거한다.<sup>10)</sup>

따라서 페미니즘 시각으로 교양/여성교양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기존의 교양 개념에 배제되어 있는 젠더를 불러 들여, 젠더 불평등 상황 및 구조, 젠더의 배치과정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교양/여성교양을 생산/재생산하는 제도 및 구조에 대해 다시 성찰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체제변혁성을 갖는다. 이때 교양/여성교양은 이념적 형태이면서 동시에 물질적 근거를 갖는 사회관계이며, 윌리엄즈가 언급한바 ‘추구’인 동시에 ‘연구’<sup>11)</sup>의 기능을 담당한다. 교양은 ‘배양되는 것으로서 일종의 담론적 억압장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젠더 불평등 구조에 기초한 여성교양은 ‘성찰성’까지 배양하여, 담론적 억압장치를 해체하는 유의미한 담론적 개입이 될 수 있다. 여성교양은 아놀드의 ‘완성의 연구’ 또는 최재서의 ‘진선미의 추구(paideia)’<sup>12)</sup>라기보다 ‘고정된 절대이념으로서의 완성’이라는 ‘중심’을 ‘깨는’ ‘과정’으로서의 개념이다.

따라서 페미니즘 시각으로 여성교양을 논의한다는 것은 남성 중심적 사회의 아비투스를 가로지르는 상징투쟁이 된다. 여성교양은 일종의 상징자본, 문화자본인 동시에 문화적 재생산 과정을 ‘거스르고’ ‘저항하는’ 대항담론의 성격 및 기능을 갖는 것이다. 문화자본, 상징자본으로서의 여성교양은 일종의 젠더장치인 문화형식(교육, 가정, 법률, 예술)에 의해 생산/재생산 되지만, 페미니즘 시각으로 교양/ 여성교양을 논의한다는 것은 위의 문화형식들이 정부, 군대, 군대, 감옥 등의 폭력적 국가장

9) 윤지관, 『Matthew Arnold의 비평연구: 교양이념의 현재적 의미』, 서울대 박사논문, 1993, 40쪽.

10) 레이몬드 윌리엄즈, 나영균 역, 『문화와 사회』, 이화여대 출판부, 1988, 171~172쪽.

11) 위의 책, 166쪽.

12) 최재서, 『교양론』, 박영사, 1963, 12쪽.

치와 더불어 젠더장치로 기능하는 과정을 검토·성찰하는 것이다. 젠더장치란 젠더 위계, 젠더 억압 구조를 가능케 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여성/남성 주체를 생산/재생산하는데 동원되는 장치로서, 가족, 학교, 종교, 시장, 교육, 신체, 서사, 미디어 등의 문화형식이 이에 해당된다.

문화형식은 일상 영역에서 ‘소비’의 측면도 함께 갖는다. 일상생활 영역은 인간과 사물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최전선이라는 점에서, 여성교양은 생산/재생산 관계뿐 아니라 생산/소비의 측면도 지닌다. 생산/소비의 관계에서 여성교양은 내적 형식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고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낸다. 여성교양의 ‘개념적 차이의 체계’(system of conceptual difference)에 대응하는 ‘물질적 차이의 체계’(system of material difference)를 극명하게 반영하게 된다. 이 과정은 이성과 감성의 재배치 과정이기도 하며, 새로운 욕망을 변주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젠더장치는 역사적 시대적 국면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sup>13)</sup> 세계사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이 있다. 여성교양과의 관련에서도 양 측면 모두 검토되어야 하며, 앞에서 언급한바 교양의 ‘갖는/요구되는’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주체형성 욕망과 사회가 개인을 호명하는 담론관계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담론관계성은 여성교양의 내적 형식과 외적 형식으로 나누어 검토될 것이다. 내적 형식이란 내면적 가치의 형식이고, 외적 형식이란 내적 형식의 일상적 발현태로서 자각, 실천, 인식 등과 연관된 일상적 삶의 문화형식들을 의미한다. 이에 는 지식 및 학문 영역, 글쓰기 형식, 행동양식, 패션, 헤어스타일, 의식주 등 일상적 문화형식들이 포함될 수

13) 알튀세는 중세의 교회-가족 장치가 근대 사회에서 학교-가족 장치로 대체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루이 알튀세로,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아미앵에서의 주장』, 솔, 1991, 97쪽.



있다.

기존의 단일 항목별 일상문화 연구<sup>14)</sup>는 ‘젠더화된 일상’ 개념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여 젠더 고착에 기여할 뿐 젠더화된 일상 이면의 젠더장치, 그리고 젠더정치학의 과정 및 변화의 동인을 거의 포착하지 못한다. 이러한 연구태도는 젠더장치를 통한 문화정치학의 거대한 흐름을 추수하면서, 지배담론 담당층에 의한 사회적 종속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치게 된다. 이때 지배담론 ‘이외의’ 담론들은 역사의 현장에서 ‘사실’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실체성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한계가 드러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 2. 여성교양의 내적-외적 형식의 차이와 담론관계성

모든 인식틀, 사유틀에는 인식주체의 관점과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개입되어 있으며, 타자의 삶에 기반한 여성들의 인식방법과 역사관, 미학원리는 남성들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sup>15)</sup> 인식주체의 시선에 차이에 대해서는 당대의 박영효를 통해서도 언급된다. 박영효는 『개화에 대한 상소』에서 신분제 차별과 남녀차별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는 남자가 예법을 제작하여 자신이 스스로 귀하고 편하게 한 것’이라며, ‘만일 부녀나 賤者가 예법을 제작하였다면 이 같은 편파함은 있을 수 없었을 것’<sup>16)</sup>이라 언급한

14) 대표적인 것으로, 여성의 일상문화를 연애, 취미, 패션, 미용, 가정생활 등으로만 인식하는 이화형 외, 『한국근대여성의 일상문화 1-9』, 국학자료원, 2004; 『한국현대 여성의 일상문화 1-8』, 국학자료원, 2005를 들 수 있다.

15)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앞의 책, 1~512쪽 참조.

16) …“此貴人男子 制禮作法 而自貴自便也 若使婦女及賤者 制作禮法 則豈有如此之偏頗哉”

바 있다.

실제 근대초기의 모성담론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시선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성젠더의 여성담론은 모성담론·가족담론의 결여형태의 남녀 동등권론 또는 남녀분권론이었으나, 남성젠더의 여성담론은 여성의 모성으로의 환원, 제도로서의 주부로 여성의 권리를 한정하는 것이었다.<sup>17)</sup> 이와 같은 젠더별 시선의 차이는 여성교양과 관련하여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이 남성 중심적 보편성 하의 긍정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여성젠더의 여성교양은 부정적 특수성에서 새로운 보편성을 구성하는 것이었다.<sup>18)</sup> 이들 젠더별 담론의 차이는 내적-외적 형식의 차이와 함께 담론관계성을 형성하면서 상호 포섭, 저항하는 길항관계를 나타낸다.

## 2.1. 남성젠더의 여성교양: 남성 중심적 보편성<sup>19)</sup> 하의 긍정적 특수성 인정

### 2.1.1. 젠더화 되는 여성교양과 지식: 어린이 교육주체, 가정관리자로서의 여성교양

근대초기 문헌에 ‘사람의 교양’, ‘어린이교양’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박영호, 『개화에 대한 상소』, 1888, 『한국근대명논설집』, 『신동아』 1966년 1월 호 부록, 23쪽.

17) 김복순,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정』, 한국고전여성문화학회 제22차 동계 학술 발표회 논문집, 2007, 97~113쪽.

18) 여성을 보편성 범주가 아닌 특수성 범주로 인식하였다는 뜻이며, ‘긍정적’은 ‘일정하게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는’ 긍정적 인식을, ‘부정적’은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부정적 인식을 의미한다.

19) 권보드래는 1900-04년 사이에 발행된 『황성신문』과 『제국신문』 텍스트 중 ‘부녀자의 신문’이라는 제한성을 표방한 『제국신문』보다 『황성신문』이 ‘보편기획’으로 제안되었다(『동화와 역사적 감각』,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2006, 55쪽)고 보고 있으나, 거칠게 표현하더라도 ‘서민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만<sup>20)</sup> 여성교양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 ① 今日の長老가 舊日孩嬰의 時에 其 教養의 受함이 有道함을 由하여 成就하는 實效를 著하는니 教養의 關係는 甚히 遙遠하여 數句 話로 摸粧하기 不能하거나와……父母되는 者가 知識에 豊富한 然後에 孩嬰의 撫育하는 規模를 覺홀디니<sup>21)</sup>
- ② 或 教導를 受하여 知識이 裕足한 者라도 其教其知를 由하여 其德 誼를 養守하기 極難한 故로<sup>22)</sup>
- ③ 學部의서 女學校 規例를 制定하여 政府會議에 提出하였는데 第1條 女學校는 女兒身體의 發達함과 生活에 必要한 普通 知識과 技能을 授함으로써 本旨를 할 事, ……第5條 女學校에 尋常科 科目은 修身 讀書 習學 算術 裁縫이요, 高等科 科目은 修身 讀書 習學 算術 作文 裁縫 地誌 歷史 理科 國語로 할 事<sup>23)</sup>
- ④ 維新의 學問과 女工에 精藝와 婦德順哲을 教育하여 賢母良妻의 資質을 養成完備하여<sup>24)</sup>

---

하는 폭넓은 대중보다 봉건적 유학자 계층을 주 독자층으로 상정한(길진숙, 『문명의 재구성 그리고 동양 전통 담론의 재해석』, 위의 책, 16쪽) 『황성신문』이 ‘보편적’일 수는 없다. 『황성신문』이 담론적 차원에서 비중이 높았다는 것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다른 뜻이다. 권보드래의 보편성 개념은 ‘남성 중심적 보편성’ 또는 『황성신문』 중심의 보편성에 가깝다.

20)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는 ‘사람의 교양’, ‘어린이 교양’이란 용어가 쓰이고 있으며, 시모타 우다코, 박정동 역의 『신찬 가정학』(광학서포, 1907, 1~2쪽)에서는 ‘어린이해교양’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김복순,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 젠더화 전략』, 앞의 글, 참조.

21) 유길준, 『서유견문』, 交詢社, 1895, 제12편, 314쪽.

22) 위의 책, 100쪽.

23) 『시사총보』 1899년 5월 25일 잡보.

24) 『대한일보』 1906년 5월 4일, 『대한매일신보』 1906년 5월 9일과 『황성신문』 1906년

- ⑤ 여학교의 교과는……대거 가정을 정리하여 선량한 가정을 작함에는 각반의 지식을 요하나니 주거, 의복, 음식, 위생, 양로 등으로부터 자녀를 교양하는 등사에 지하기까지<sup>25)</sup>
- ⑥ …是는 男子教育의 大要어니와…女子에게 또 尙武的 教育을 實施하는 故로 쇠팔타 女子는 家族의 一 分子로써 家事를 整理함보다 國家의 要所되는 健康한 小兒를 生産함이 國家의 對하야 重要的 義務로 思惟하야……스팔타 婦人은 賢婦養母로 後世에 模範을 作할자 | 甚多하더라<sup>26)</sup>
- ⑦ 初에 善히 栽植치 못함이오 兒童을 教育함도 此理와 稍異함이 無하니 是故로 兒童이 成長하야 \*弱愚鈍한 者는 胎育을 不謹함과 幼時에 失教로 有하느니……兒童의 幼時 教養은 本다시 愼하고 又 愼할 것이라”<sup>27)</sup>
- ⑧ … 지금 윈 텨하를 돌아 보아도 문명한 나라일수록 혼인하기를 험기가 확실히 尙장하기를 기드릴 뿐이 안이라 남녀간 다 공부를 녀녀이 하고 또 혼인하면 살림할 것과 자녀 교양할 도릿지 미리 尙선하고 경영한 후에야 비로소 혼인을 행하며…우리나라에서는 살림하고 子녀교양 遺産과 도리를 미리 경영하고 尙선하기는 고스하고<sup>28)</sup>
- ⑨ …此 蓄妾은 卽 其 家를 伐하는 一 毒斧며 其 國을 害하는 一 禍階라…然하더 近者 妾女界에서 文明을 誤解하며 人道를 妄想하야 所謂 妻妾同等主義를 仗하고 女子教育을 主唱하여 曰 妾도 學問이 有하고 知識이 有하면 足히 正室과 平等도 되고 自由도 得할

5월 8일자에도 양규의숙 취지서가 실려 있다.

25) 장웅진, 『교수와 교과에 대하여』, 『태극학보』 제15호, 1907, 11쪽.

26) 박은식, 『문약지폐는 필상기국』, 『서우』 제10호, 1907, 5쪽.

27) 현공립 편, 『신정가정학』, 유일서관, 1913, 8~9쪽.

28) 주시경, 『일즉이 혼인하는 폐』, 『가정잡지』 제4호, 1906. 5.

터인즉 此 主義로 女子를 教育호야 正室의게 壓制를 아니 밋는 妾이 되게 호자 한다 호니 噫라 眞正한 文明 眞正한 人道가 發達될 스록 妾의 賊辱은 尤甚호며 妾의 虐待는 尤甚호는 바어날 異哉라 彼の 愚論이여 彼の 無知識이 實노 可憐호 썬더러 或 此等 風潮가 女子界에 傳染되야 誤解에 誤解를 加호면 畢竟 一種 可怪의 演幕이 作호지나……吾儕는 凡 此妾身世를 作호 女子同胞에게 一告호 노니 果然 平等 自由를 樂호거던 아모도록 彼等 誤解의 主義를 執치 말고 眞正호 自由 平等의 人物이 되야 後進女子를 引導호되 반 다시 妾을 作지 말나 호며 …29)

여성교양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여성을 ‘여성으로서의 인간’(female person)으로, ‘개인’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성은 그동안 ‘어리석은 자’들로서 ‘버려지는’ 대상<sup>30)</sup>이었다. 버려졌던 대상들을 ‘쓸 사람’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여성’을 위해 서라기보다 향후 국가를 책임질 ‘국민 주체인 아이’들의 교육 때문이었다. 남성젠더의 여성담론에서 ‘쓸 사람’으로서의 여성이란 앞서 말한 ‘여성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가정교육 담당자, 어린이 교육주체로서의 모성이었으며, 제도로서의 주부였다. 남성젠더의 논의에서 여성은 ‘간접적 국민주체’일 뿐 ‘개인’ 주체는 아니었다.<sup>31)</sup> 남성젠더의 여성담론 거개는 이와 유사한 인식을 보였으며, 이때 남성젠더의 담론의 심급은 ‘사회’가 아니라 ‘국가’였다. ① ④ ⑤ ⑥ ⑦ ⑧에서 여성은 ‘개인’으로서보다 어린이 생산 및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주체, 교육주체 및 가정관리자였지 인간 개인이 아니었다.<sup>32)</sup> 이때 여성교양과 지식은

29)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8일 논설.

30) ‘녀학교를 몇출 세워 계급 〇희들을 교혹을 식히거드면 몇희가 아니 되야 전국 인 구 반이나 내브러던 거시 쓸 사람들이 될 터이니 국가 경제학에 이런 리는업고…’ 『독립신문』 1896년 9월 5일 논설.

31) 김복순,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정』, 앞의 글, 참조.

어린이 교육, 어린이 교양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뿐 여성 개인의 주체형성 또는 권리획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한편으로는 어린이 교육 주체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관리 감독자로서 ‘여성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개념에 국한되었다.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은 ③에서 드러나듯 ‘생활’에 필요한 보통 지식과 기능, ④에서의 유신의 학문과 여공, 부덕순철, ⑤에서는 여성의 지식을 가정 내적으로 한정하여 주거, 음식, 위생, 양로 등으로 구체화 하여 한정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시대처럼 여성을 ‘어리석은 자’ 또는 ‘무지한 자’로 규정하는 내용에서 벗어나 ‘가정관리자’ 및 ‘어린이 교육 주체’로서의 위치성은 인정해 주었지만, 남성의 우월성과 지배자로서의 위치는 굳건히 하면서,<sup>33)</sup> 여성을 기껏해야 ‘하위 파트너십’의 대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다. 하위 파트너십은 상하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진정한 파트너십이 아니다. 이는 남성 중심적 보편성 하에서 여성의 긍정적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양상은 남성젠더가 기획한 여학교 교과목에서도 확인된다. 여학교 교과목은 1905년 이전, 이후가 차이가 나는데, 1905년 이후의 여성지식·여성교양은 1905년 이전에 비해 남녀분권적 성 역할 분담에 기초하여 가정교육과 관련한 교과목이 현저히 증가한다.<sup>34)</sup> 이는 모성담

32) 위의 글, 참조.

33) ‘사나회들이 증청하야 동등권을 주는 거시니 엇지 의리에 맞당치 안흐며 장부에 흐는 일이 아니리오.’(『독립신문』 1896년 9월 5일 논설). 여기서 보듯 여성교육을 베푸는 것은 장부인 남성의 도리이며, 여자에게 어린이교육을 맡겼지만, 그 여자를 교육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자의 책임이다(『서유견문』, 앞의 책, 315쪽). 당시 신문의 기본 노조는 남성들의 이러한 시혜적 자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34) 민간 사립 남녀학교의 교과목을 비교해 볼 때, 1898년에 순성여학교의 교과목이 ‘천자 동몽선습 태서신사 재봉’인데 반해 홍화학교의 교과목은 ‘영어 산술 지지 역사 작문 토론 체조’였으며, 1905년의 태평동 여학교의 교과목이 ‘한문 국문 영어 산술

론의 양상에서도 드러나듯 ‘현모 형식’에서 ‘현모양처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양처를 부가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종속을 강화하는 과정<sup>35)</sup>과 일치한다.

근대초기 남성젠더의 여성교육론에서의 지식은 신학문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남성젠더가 요구하는 여성교양은 어디까지나 ‘여성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지 서구적 교양과 지식의 근본정신을 수용한 것이 아니었다. 이때의 여성의 도리란 과거 조선시대의 『계녀서』 등에 나타나는 ‘부덕’과는 분명히 달랐지만, 여전히 가정 내에 여성을 위치시키는 것으로, 자신들이 섭취해야 하는 지식과는 ‘구별되는’ 지식이었다.

남성젠더의 자유 평등 개념이 남녀동등권도, 남녀평등권도 아니었음은 ⑨의 예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⑨는 당시 첩들의 건의문으로서, 자유 평등 사상을 자신에게도 적용하여 정실과 동등 대우를 해줄 것을 주장한 글이다. 논설자는 첩들이 자유 평등 개념을 오해한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절대 불가함을 역설하고 있다. 1890년대에도 축첩제에 관한 기사는 꾸준히 게재되었고, 1898년 11월 7일자 “남의 첩노릇하는 계집들은 일절 동등권을 주지 말자”는 논설에 대해 어떤 유지각한 시골부인은 그 부당함을 『제국신문』 11월 10일자에 기고한 바 있다. ⑨의 논설은

---

지지’인데 반해 양정의숙은 ‘산술 일어 만국역사 국가학 경제원론 법학도론 민법총칙 형법총론’ 등이었다. 특히 명신여학교의 경우는 ‘한문 국문 일본어 산술 작문’ 외에 소위 여성용 교과목인 ‘재봉 편물 자수 조화 가사’ 등 여학생 과목이 가장 많이 추가되어 있었다(김재인 외, 앞의 책, 89~90쪽의 자료들 참조). 타학교의 경우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1905년 이전에 비해 1905년 이후에 여학교의 경우 가정과 연관된 여성교과목들이, 남학교의 경우 정치 경제 법 관련 과목들이 대거 채택된다. 이는 교과목 배치를 통한 지식의 젠더화 양상을 뚜렷이 드러내는 증거이다.

35) 김복순,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정』, 위의 글, 1905년 이전은 ‘현모형식’(모성형식의 제2유형) 1905년 이후는 ‘현모양처 형식’(모성형식의 제3유형)으로 1905년 이후 여성에 대한 종속이 강화되는 방향이었다. 1905년 이후에는 국민 생산/재생산 주체로서의 모성이 더 강조된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의 것임에도 기본 논지는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시킨다.

⑨에서 확인되는 남성젠더의 평등 개념은 동등도 아니며, 평등도 아니다. 천부인권 개념의 동등도 아니며, 기회의 평등도 결과의 평등도 아니다.<sup>36)</sup> ⑨의 논지는 첩이 된 것을 개인적인 잘못으로 치부하면서 첩에게 일종의 죄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첩들은 여성교양과 전혀 상관없는 무지식하고 몰상식하며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악이며, 폐기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축첩은 제도로서 개인에게 그 잘못을 돌릴 사안이 아니다.

⑨의 남성젠더의 자유 평등 개념은 계급적 계층적 차이를 전제로 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특정 계층을 배제하는 방식의, 계층을 전제로 한 남녀분권적 입장에서, 남성젠더는 남성교육과 여성교육, 여성교양과 남성교양을 구별짓기 하고, 여성교양을 젠더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남성젠더의 구별짓기는 차이화를 통해 자신의 지배(우월성)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가정에 제한된 여성교양과 지식은 남성교양과 지식의 우월성과 보편성을 확보해주는 근거로서, 이 때 여성지식은 남성지식의 보편성을 획득케 하는 타자가 된다. 남성지식은 여성지식을 타자화 하여 남성지식의 동일성과 보편성을 재생산하였다.

### 2.1.2. ‘제국주의적 자기’의 가부장적 감각과 아유(我有)

남성젠더는 교양=지식으로 보지 않았다. ①과 ②에서 교양은 지식이 풍족한 연후에 생기는 어떤 자각이고, 지식이 넉넉하더라도 교양에 어울리게 덕을 닦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다. 즉 교양은 지식에서 더 나아

36) 동등과 평등은 종종 같은 개념으로 혼동되어 쓰이나 이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평등은 동등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기회의 평등이 동등의 개념이라면 결과의 평등은 능력별 자질별 차이를 고려하여 차이에 맞게 배분하는 것이다.



가 어떤 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각이며, 교양은 일종의 ‘사회적 덕(행)’과 연관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 예문은 남성젠더가 생각하는 여성지식과 ‘실천적’ ‘덕목’으로서의 여성교양의 개념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연히 드러내 준다.

⑩ …시학문을 비호하며 머리도 싸가야 하겠고 여자의 풍기도 변해야 교육도 식혀야 하겠고 녀즈의 교제도 널너야 하겠다…부인 사회가 변하면 거슨 감사하거니와 우리는 그 일에 더해야 무수히 설명할 일이 잇는 거슨 첫지 본국 부인들이 학문업난 거시오 들지 본국 녀즈의복제도가 야한 거시오 세지 녀즈의 단장이 어엿분 거시라…본국 녀즈들은 락일 스무란 거슨 팔즈 아미와 니마의 털이나 썩소 밀길음이나 발나 머리털이 장판 조각 되듯 하고 분을 만이 발나 회박을 뒤집어 쓴 듯하게 하고 은금보피로 통봉잠 귀이기 납위잡에 순호금픽 옥지환에 가진 노리지란 거슬 줄영줄영 차고 의복은 도흔 비단으로 울긋불긋 적고리나 적삼은 손톱만콤폴 만들어 넣은 거슬 보던지……도대더 남의게 어엿부게 보이자는 듯인즉 녀즈가 되야 남즈에게 승순하고 녀즈된 도리만 하면 그 남즈던지 식부모가 즈연 어엿부게 볼 터이어늘 형실은 잘못하고 모양만 단장하면 여엿비 불리도 업슬 터시오……그런즉 그는 스부가나 려염가 부녀를 물론하고 로류장화의 티도를 본받는 거시니 엇지 붓그럽지 은코 욱되지 은나다 하깃난가<sup>37)</sup>

⑪ …남의 나라 녀즈들은 …사름마다 순연하야 창녀 모양으로 어엿분 티도가 업는고로 보아도 무심하거니와 본국 녀즈들은 의복과 용모를 단장하고로 남이 다 이상스럽게 보나니 그 가운데 즈연 음란한 풍기가 더욱 심한지라 …녀즈가 덕행은 숭상치 은코 남에게 어엿부게만 보이자는 본의가 엇지 무거하고 고이치 안타 하깃는가 근일은

37) 『제국신문』 1905년 6월 17일 기서 ‘부인교제는 학문이 근본됨’

…부인이나 첩이나 로류장화나 일반이어니와 당초 본의는 창녀 중에서 싱긴 음풍이라 불기불 급히 기랑홀 터인데…엇던 유지훈 친구가 녀즈 의복의 불미흔 거슬 한탄하야 니외국 녀즈의 의복제도를 참호하야 만들엇는디 저고리와 치마를 한테 부쳐 지으되 저고리는 깃과 셔만 좀 달고 치마는 줄음 잡아 …미우 시세에 합당흔지라 만일 유지훈 남녀 간에 그 제도를 모본하야…차차 전국 부녀가 그 디로 하면 야흔티도가 변하야 순실흔 풍속이 될 터이니…녀즈의 교제를 날니코져 홀진디 우선 학문을 차례로 갈아치려니와 그 의복부터 기랑하는 거시 급선무오 또 용모의 단장은 결단코 폐지하야 로류장화의 비피하고 천루흔 모양을 버리게되면 엇지 아름답지 온켓는가 원컨디 당국 제공들은 인도에 근본되는 녀즈의 학문과 의복제도 곳치는디 주더치 말면 국가에 다행이오 민성의 행복일 듯<sup>38)</sup>

#### ⑫ 대신 부인들의 부인회 설치

이지용·이재극·민영환·민영철·민상호·이하영 등 수십명은 그들의 처가 부인회를 만드는데 방관하고 있었다. 일본 사람 萩原守一과 國分象太郎의 처도 참여하였다. 이지용의 처 홍씨와 민영철의 처 유씨가 가장 영리하고 어여뻐는데 그들은 長谷川과 악수도 하고 입도 맞추었으며 수시로 출입하여 국중에 추문이 자자하였다.<sup>39)</sup>

위의 인용문에서 여성교양의 의미는 학문 뿐 아니라 그 외적 형식인 교제하는 법, 미용, 패션과도 구체적으로 관련된다. ⑩과 ⑪은 부인의복 개량논의이지만 글 전반에 여성에 대한 남성젠더의 위기감과 두려움이 흥분된 어조로 표현되어 있다. ⑫는 여성들의 달라진 인사법과 인간교제 방식에 대해 섹슈얼리티 중심으로 인식하면서 경멸적인 시선을 드러낸다. 이들 논설의 문면에 드러나는 바, 남성들의 지나친 경계태도는 소

38) 『제국신문』 1905년 6월 19일 논설 ‘부인 교제는 학문이 근본됨 (속)’

39) 황현, 『매천야록』, 임형택 외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5, 241~242쪽.

위 여성들의 패션, 미용, 의복이 여성의 섹슈얼리티 욕망을 반영한다고 보는 반증의 표현이다. 남성들의 여성교양이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함의가 담겨 있다.

남성젠더의 시선은 섹슈얼리티 중심의 여성주체 구축 메커니즘을 확인시킨다. 실제로는 ‘학문이 근본됨’이라 언급하고 있지만 패션 미용 등으로 표출된 여성들의 새로운 욕구를 부정하면서 섹슈얼리티 중심으로 여성주체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낸다. 더구나 반제국주의자였던 황현의 글에서는 반제국주의가 여성 차별과 상호 공모관계에 있음이 확인된다.

패션은 신분이나 지위, 교양과 연관지어 판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 위 예문에서 남성젠더는 야한 패션은 곧 창녀의 것이라 단정한다. 패션, 미용, 교제법에 있어서 순실한, 순연한 모양새야말로 여성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며 여성의 덕행이라 본다. 이는 일종의 위치짓기이며, 구별짓기 논리이다. 베블런(Veblen)은 패션이 사회에서 사람의 지위를 분명히 자리매김 하는 시스템<sup>40)</sup>이라 언급한 바, 남성젠더 역시 이러한 구별짓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교양 있는 여성과 창녀의 구별은 패션, 미용, 교제법과 연관지어져, 야한 것은 창녀의 것, 순연한 것은 교양 있는 여성의 것으로 환치된다. 남성젠더들은 패션, 미용, 교제법을 계층, 계급 속에 자리매김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이를 ‘교양의 징표’ 및 ‘사회적 존경심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위 논설에 나타난 남성젠더의 흥분과 경계는 부인들이 ‘교양 있는 여성’의 복장 규칙을 위반했다고 진단한 결과이다. 남성들은 패션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여성을 표현하고 싶은 부인들의 가시적·잠재적 욕망을 읽고 이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들의 이러한 경계는 여성들의 새

40) 베블런, 정수용 역, 『유한계급론』, 광민사, 1978, 1981, 155쪽.

로운 미적 스타일 추구를 시각적 매력으로 느낀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어여쁘다고 느끼게 하는 야한 차림은 관능적이고 섹시하게 보여 남성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창녀라면 몰라도 일반여성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다. ‘야한’ 차림은 남성젠더의 감성 및 가치관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일종의 ‘매력’과 다름이 없는데, 일반여성들은 매력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간소하고’ ‘순연한’ 것이어야 한다는 남성젠더의 향변은 야한 것(매력적인 것, 여성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비정상적’이라 규정하면서 여성들의 패션, 미용, 교제법에 관한 사회적 통제의 특권을 확인시킨다.

당시 동부인 문화가 확산되고 각종 부인회 등에 외국부인들도 참여하면서 여성들의 교제 범위가 넓어지고 여성들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남성젠더는 여성들의 지위변화에 두려움과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이를 통제할 필요를 느낀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남성젠더는 자국 여성을 외국부인과 비교하면서 외국부인들의 학문과 검소한 의복문화 등을 본받을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서양 학문과 서양 여성, 한국 남성과 한국여성 사이에서 일종의 전이가 일어나는데, 서양과 한국의 관계는 한국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 전이되는 것이다. 즉 서양과의 관계에서 타자화된 한국 남성 지식은 주권을 가진 서양적 주체를 받아 한국 여성을 자신의 타자로 삼고 자신을 ‘남성으로 재 젠더화’ 하는 것이다. 남성젠더는 제국의 문화를 아유(我有)<sup>41)</sup>하여 자신의 남성성을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은 이중 젠더화 과정을 겪는다. 남성젠더는 자신을 서양인으로 규정하는 문화전략을 세우고, 서양이 아

41) 아유란 제국의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나 사회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거나, 제국주의 측에서, 식민지의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쓰인다. 岡眞理, 『彼女の‘正しい’名前とは何か』, 青土社, 2000, 2002, 17쪽.

닌 동양이라는 인종적 자아, 인종적 지식을 바탕으로 ‘제국주의적 자기’를 구성한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자기 인식은 ‘모방의 수동성’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때 남성젠더는 여성표상에 대한 제국주의와 융합한다. 사이드의 지적처럼, 문화와 제국주의 사이의 상호작용은 젠더와의 관련성 속에서 일어난다.<sup>42)</sup>

그런데 이 제국주의적 자기의 감각은 가부장적 감각이었다. 가부장적 감각이란 여성의 위치성을 가정으로 제한하려는 장치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감각이다. 외국의 문명개화한 문물을 본받자고 하면서도, 패션, 미용, 악수법, 남녀교제법, 동부인 문화 등에 함축되어 있는 진정한 문명개화 정신은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이란 한국의 가부장제 유지에 적절하게 수용될 수 있는 범위의 것이어야 했다. 어여쁜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혐오하고 창녀로 몰아부치는 남성젠더의 감각은 여성의 외적 욕망을 거세하고 안에만 가두려는 가부장의 감각이다. 이들에게 섹슈얼리티를 한껏 드러내는 여성은 세상 질서를 뒤 흔들고 풍기를 문란케 하는 ‘위험한 여성’<sup>43)</sup>들일 뿐이다. 남성들의 영역인 공적 세계, 공적 자아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여성으로서 이들은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은 서구 문화의 수동적 모방에 기초하였고, 그러한 학문과 지식에 매개된 젠더화된 교양이었다. 이들의 서구 문화 추종의식은 후진국이 선진국을 모방하는 트리클 업(trickle-up)<sup>44)</sup>의 방식이었으며, 2절에서 확인되는 바, 여성들의 창의적

42)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역, 『문화와 제국주의』, 문예출판사, 2005, 1~782쪽 참조.

43) 일레인 김·최정무, 박은미 옮김, 『위험한 여성』, 삼인, 2001, 1~404쪽 참조.

44) 먼저 트리클 다운(trickle-down) 이론부터 설명하자면, 사회학자 짐멜에 의해 주장된 트리클 다운 이론은 하위의 사회집단이 상위집단을 모방하여 추종하는 과정에서 상위집단의 여러 표지가 ‘물방울 떨어지는’ 효과처럼 하위집단으로 채용되는 반면, 상위집단은 하위집단과의 차이화를 계속 만들면서 자신의 지위를 재생산한다는

인 모방과는 다른 형태였다. 남성젠더는 서구문화를 이유하여, 한편으로는 모방하는자(imitators)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차이를 만들어내는자(differentiators)로서 여성교양과 여성지식을 젠더화 하였다. 남성젠더는 서구문화에 대해서는 트리클 업, 여성젠더에 대해서는 트리클 다운 하도록 요구하는 이른 바, 중간집단 역할을 하였다. 즉 모방과 차이화의 두 원리를 동시에 적용하는 이중적인 중간 주체였다. 남성젠더는 모방 대상인 서구 문화의 본질적 정신 및 원리를 전폭적으로 모방할 것을 원치 않았으며, 제국주의적 자기의 가부장적 감각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만 모방하기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근대초기 남성젠더의 이성과 감각의 재배치 결과를 확인시켜 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자기의 가부장적 감각에 의해 여성젠더의 일상문화 또한 젠더화 되기 시작하였다.

## 2.2. 여성젠더의 여성교양: 부정적 특수성에서 새로운 보편성의 추동

### 2.2.1. 능동적 타자의 핵심 문화자본으로서의 여성교양과 분유(分有)

교양인은 세계에 대해 자신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인식들을 필요로 한다. 사회 정치적인 의식이 붕괴되고 이전의 여러 전통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근대초기에 여성들은 젠더 불평

---

이론이다. 이때 모방과 차이화의 두 원리가 혁신의 엔진 또는 원동력 역할을 한다. 이에 반해 필드와 블룸버그는 방향성과 관련하여 지위상징의 트리클 업 경로를 지적하였다(그랜트 매크레켄, 이상률 옮김, 『문화와 소비』, 문예출판사, 1996, 201~222쪽 참조). 트리클 다운 이론은 상위집단의 시각에서 나온 이론이며 트리클 업 이론은 하위집단의 시각을 초점으로 하여 나온 이론이라 판단된다. 근대초기 우리의 입장이 열등성의 위치라 인식하였던 만큼 트리클 업 이론이 좀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자신들의 존재적 실체를 해명하고 극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지성을 찾아야 했다. 개개인의 독립성과 자유를 가지면서 사회 문화 전반에 참여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평가할 줄 아는 교양과 지식을 추구하게 되었다.

19세기 말 한국 사회에는 능동적 타자로서, 자신의 존재의 실체를 해명하고 인식주체, 자각주체, 실천주체로 주체형성을 도모하는 ‘새로운 여성 인간형’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중세적 교양으로 함의되어 온 ‘부덕’의 개념을 재배치하며, 동시대 남성젠더의 ‘현모’ ‘현모양처’ 형식과 다른 주체형성을 도모하였다.

- ① 대더 물이 극 흐면 반다시 번 흐고 범이 극 흐면 반다시 곳침은 고 금에 상리라 이 동방 삼천여리 구역과 렬성조 오빅여년 기업으로 승평 일월에 취포 무스터니 우리 성상 폐하의 외외 탕탕 흐신 덕업으로 림어 흡신 후 국운이 더욱 성왕하야 임의 대황데 폐하 위에 어 흡시키고 문명헌 기화 정치로 만기를 총찰 하시니 이제 우리 이 천만 동포 형태가 경의를 효순 하야 전일 히티 허던 구습은 영영 버리고 각각 기명헌 신식을 좇차 흥 흡시 스스이 취셔되야 일신 우 일신 흡은 영영헌 쇼아라도 저마다 아는 비여늘 엇지하야 우리 녀인들은 일향 귀먹고 눈 어두운 병신 모양으로 구구문 직히고 잇는지 물을 일이로다 흑즈 신테와 슈족과 이목이 안너가 다름이 잇는가 엇지 하여 병신 모양으로 사나히의 버러 주는 것뎌 먹고 평시를 심규에 쳐 하야 그 절데만 맞으리요 이왕에 문져 문명 기화헌 나라를 보면 남녀가 일반 사룸이라 어려서 브터 각각 학교에 다니며 각항 지조를 다 비호고 이목을 넓혀 장성헌 후에 사나히와 부부지의를 명하야 평시를 살드리도 그 사나히의 일호 절데를 맞지 아니 흐고 도로혀 극히 공경 흡을 맞음은 다름 아니라 그 지조와 권리와 신의가 사나히와 일반인 연고라 엇지 아롬답지 아니 흐리요 슬프다 도로혀 전일을 싱각 흐면 스나히의 위력으로 녀편네를 누르랴고 구설을

빙자 하야 녀자는 거나이불언의 하며 유 주식 시의라 하니 엇지 히  
 여 신테수족 이목이 남자와 다름 업는 한가지 사름으로 심규에 처  
 하야 다몬 밥과 술이나 지호리요 도금에 심규를 진폐 하고 신식을  
 시형 흠이 우리도 혁구 종신 하야 타국과 꺾치 녀학교를 설시 하고  
 각각 녀으들을 보니여 각항 지조와 규칙과 형세 하는 도리를 빙화  
 일후에 남녀가 일반 사름이 되게 하을 츠방장 녀학교를 설시 호오  
 니 유지호 우리 동포 형데 여러 부녀 중 영웅 호걸님네들은 각각 분  
 발호 뉘음을 내어 우리 학교 회원에 드시라 하시거던 곳 착명 하시  
 기를 바랍습나이다

대한 광무 이년 구월 일일 통문 고표인 리소스 김쇼스<sup>45)</sup>

- ② 1899년 음력 춘3월에는 그 회에서 덕수궁 포덕문 앞에 축첩 반대  
 플래카드를 세우고 상소데모를 한 일이 있었다. …그녀들은 흰 형겅  
 에 먹 글씨로 ‘한 지아비가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윤리에 거스르  
 는 길ियो, 덕의를 잃은 행위’(一夫二室 悖倫之道 德義之失)라고  
 크게 세로로 내려써서 장대에 매달아 포덕문 앞에 세웠다. 그 옆에  
 는 정결한 돛자리를 깔고 대부분 옥색 치마에 미색 반회장 저고리  
 를 받쳐 조촐하게 의상을 차려 입은 30-40대의 젊은 부인 50여 명  
 이 한 무릎을 세우고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었다……선두에 앉아 지  
 휘하는 여인은 한문으로 정형숙鄭亨淑이라는 이름을 번듯하게 썼  
 다.……그가 여우회 회장임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그녀들은 고종  
 황제에게 “삼감께서 먼저 후궁을 물리치시고 공경대부로부터 미관  
 말직과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기왕지사는 불문에 붙이고라도 앞  
 으로는 절대로 첩을 두지 말라는 칙령을 내려 줍소서”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sup>46)</sup>

- ③ 날마다 신문보니 논설마다 절담일세 남즈로 싱세하야 흥의가 업게

45) 『독립신문』 1898년 9월 9일 잡보.

46) 최은희, 『한국개화여성열전』, 정음사, 1985, 59~68쪽.



드면 남즈라홀것잇소 남즈로싱것거든 대장부스업호오 스업이라호  
 논거슨 충효의리웃듬이라……충성충곳게잡아 보국안민호압세다 나  
 라이티평호고 빅성이안온호면 그안이조홀잇가……우미호녀즈들도  
 연설을들어보니 충이지심격발호나 녀즈몸이도얏스니 보국안민홀수  
 잇소 녀학교설시호야 기명규칙비온후에 남즈외동등되여 충군익국  
 목적습아 황실을 보호호고 민성을 구제호면 그아니조홀잇가……아  
 모도륙성취호야 외국치(?)소밭지마오 학교가 근게되면 외국에도 빗  
 치날듯 십칠일귀월절에 여러만량나렀다니 이싱각갓을진디 그돈도  
 로밭치고서 각회와각부셔에서 즈비호여놀아스면 외국벗시적사올듯  
 남의치전만스오면 필경갑홀터인즉 무어스로갑홀잇가 국가던지스가  
 던지 빗업셔야지팅호오<sup>47)</sup>

#### ④ 엇던유지각호 시고를 부인의 편지

신문이라호는거시 대함에 처음나셔 우미호 녀인들도 세상형편 알  
 게호니 감축호기 그지업셔 각쳐신문 보옵더니 일전 데국신문 논설  
 보니 말마다 당연호는 부인평논 논설중에 분간이 희미호기 디강들  
 어 설명호오 부인도 충충이요 스부도 충충이요 남의첩도스부의 딸  
 이라고 형세가 탕잡호면 그리도 부인잇가 상놈의 딸이라도 종작업  
 는 남자들이 후취 삼취 스취스지 흙부로희온것도 부인축에 가오릿  
 가 첩이라도승쳐호후 드러와서 고락을 갖치격고 봉제스첩빈직에 자  
 식났코 일부종스호는 첩이 부인만 못호릿가 탕잡부랑 호는첩과 갖  
 치 옥석구분호여야 엇지 아니 분호릿가 녀학교를 설한다니 설시  
 전에 이구정을 먼저호기 천만축슈 호나이다

슬푸다 대한천첩되 녀인들아 광풍갓탄 남자말을 신탁호고 츠츠평  
 습이 도여 지금에 니르러서 첩턴디가되여스니 이구습을 어이호리…  
 부디 부디 딸 가지고 남의시앗쥬지말고 첩노릇을 호지마오 세상에  
 못홀노릇 그밖에 쏘잇는가 김히김히 싱각호고 아모도륙 흑문비와

47) 『제국신문』, 1898.11.5. 11월 10일자에도 개명진보, 부강, 타국병정 보호말고 대한  
 군병보호를 외치는 신소당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외국부인 동등되게 일심으로 협력호오<sup>48)</sup>

- ⑤ 승동 사는 밍쇼스가 한성부지판쇼에 청원하기를 본인이 일즉 과부  
되야 살 슈 업기로 작년부터 최사과 학리의게 기가호은 바...최사과  
는...사는 집은 남의게 비러 들었스며 세간 짐물은 근본 밍쇼스의  
것이어늘 최사과가 무슴 죄과이 잇섯던지 경무청에 잡힌 후에 지금  
연좌 범를 업는 세상이어날 엇지 지산 몰슈호는 법이 잇스며...<sup>49)</sup>
- ⑥ ...그 다음에 여러 부인네들이 연설하기를 하나님이 세계 인성을 나  
으실 때에 사나히나 녀편네나 사름은 다 혼가지라 녀즈도 남즈의  
학문을 교혹밧고 남즈의 동등권을 가져 인성에 당한 스업을 다 각  
기 호는것이 당연호 도리여늘 동양풍속은 엇지호여 녀즈가 남즈의  
게 압제믄 밧고 죽은 목숨궤치 지니는지 텃디간 만물의 가운데에  
오직 사름이 귀하다 호은 총명이 잇는 연고인디 총명이 혼궤 남즈  
의게믄 잇는 것이 아니라 녀즈도 쏘호 총명호 지질인직 학문과 동  
등권을 가져 남즈를 더욱 리롭게 도을지라 그리호거드면 남녀간에  
고락을 혼가지로 호고 스업을 갖치 호며 성의를 고르게 호야 나라  
이 다 부강호고 집안이 더 태평호 터이니 그럴디경이면 엇지 아름  
답지 아니호리요 호더라<sup>50)</sup>
- ⑦ 地球를 環호야 一般女子가 社會를 단속호야 開明進歩 호는 時期를  
當호야...고로 本會에서 女子教育호 目的으로 標準호읍고 僅成  
一團이오나 其中에 最히 急先務는 風俗을 改良 호은 後에야 漸次

48) 『제국신문』, 1898. 11. 10.

49) 『독립신문』 1898년 6월 14일 잡보. 여성들의 고소(청원) 사건은 『독립신문』 1897년 4월 10일, 8월 21일 잡보란 등에 상당히 소개되어 있다.

50) 『독립신문』 1898년 1월 4일 논설. 이 논설은 청년회 연설을 요약한 것으로, '남녀를 궤호 학문으로써 교혹호며 동등권을 주는 것이 가호다'는 문제로 남녀 간에 좌우편에서 강론한 것을 옮긴 것이다. 의스 제손씨가 우의로, 의관 윤치호가 좌의로 연설한 후 부인들의 연설을 기록한 것이다.

로 諸般 學問과 知識을 發達할 勇心이 自然 湧出호을 거시니 此는 女子의 衣冠을 改良호야 行動에 自由力을 得한 然後에 男女의 交際와 經濟의 便利가 爲先 必要호 衆議로 本會에서 改良호기를 確實히 取結호으며 公私의 通用호 衣冠의 制度를 先究方法호와  
.....51)

당시 여성젠더의 사회 인식은 자신들이 젠더, 민족, 인종, 국가 별로 부정적 특수성의 범주라는 것이었다. 위 인용문들은 부정적 특수성 하의 여성의 위치성을 확인시킨 후, 이러한 부정적 특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보편성 범주를 설정하면서 그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①은 찬양회 부인 300여명이 모여<sup>52)</sup> 배포한 『여학교 설치 통문』이다. ‘물이 극 흐면 반다시 번 호고 법이 극 흐면 반다시 곳침은 고금에 상리’라는 과정적 인식·구성적 인식 하에 부정적 특수성 범주로 인식되어 온 ‘나라’와 ‘여자’에 대해 언급한다. 새로운 보편성 형성과 관련하여 제시된 것은 신식과 개명, 여성의 동등권 및 그 수단으로서의 여학교 설치였다. 우리나라의 ‘전일 해태하던 구습’ ‘귀먹고 눈 어두운 병신 모양으로 구구만 지키고 있는 여인’들은 부정적 특수성의 범주로, ‘개명한 신식’과 ‘재주와 권리와 신의가 사나히와 일반인 여성’은 새로운 보편성의 범주로 설정한다.

찬양회 부인들은 젠더 불평등의 책임을 여성 탓으로만 돌리지는 않았다. 여성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보다 ‘너편네를 누르랴고 구설을 빙자 호야 녀자는 거니이불언외 호며 유 주식 시의’라는 젠더 장치를

51) 『만세보』 1906년 12월 18일 잡보.

52) 찬양회 회원들은 계층 계급적으로 연대하여, 통문을 돌리고, 고종에게 상소를 올리고,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학교설시가 늦어지자 여성들만의 힘으로 자본금을 준비하여 개교하였다. 박용옥, 앞의 책, 57~78쪽.

만든 사회 및 남성들에게 더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이들은 사회가 도덕규범을 젠더 장치로 활용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서 드러나는 여성교양은 남녀동등 인식과 그것을 실천할 줄 아는 능력 및 지식이다. 이러한 인식과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명 개화한 나라’인 ‘타국’의 사례를 새로운 보편성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여학교는 이러한 새로운 보편성을 확보케 해줄 강력한 수단이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교양 및 지식 배양 수단은 외국인들이 경영하는 기독교 학교도, 신식 학문만도 아니었다. 이미 10여년 전에 이화학당 등의 여학교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들은 기독교 학교가 아닌 새로운 여학교를 기획하였다. 외국인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와는 차별화된 일반 학교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여성교양의 내포는 서구 일반도도,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었다. 이미 12년 전인 1886년에 설립한 이화학당의 교육목표가 ‘한국적 여성과 기독교적 여성’<sup>53)</sup>이었던 점에 비해 이들은 기독교 여학교가 말하는 ‘한국적 여성’과 내포가 달랐다.<sup>54)</sup>

찬양회 회원들의 여성교양은 이들이 세운 순성여학교의 교과목을 검토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순성여학교의 교과목은 그 이전 및 이후의 어떤 학교의 것보다 다르다. 천자, 동몽선습, 태서신사<sup>55)</sup> 재봉<sup>56)</sup> 등

53) 스크랜튼 여사는 “여아들을 외국인의 생활·의복·및 환경에 맞도록 변하게 하는데 있지 않으며……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인으로 만들고…한국인이 한국적인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게 되기를 희망……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하여 완전무결한 한국을 만들고자 희망” 한다고 천명하였다. 손인수, 『한국개화교육연구』, 일지사, 1981.

54) 1890년대 이화학당의 교과목은 한문 영어 산수, 생리학, 역사, 성경, 초등지리, 한글, 오르간, 노래, 재봉, 자수로 되어 있다. 김재인 외, 『한국 여성 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88.

55) 『독립신문』 1899년 3월 1일 잡보 『소학』도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자도 있으나(박용옥,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71쪽; 김재인 외, 『한국

이 이들의 교과목이었는데, 재봉을 빼고는 남학교 교과목과 동일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구학 중심’이라는 점이다. 이는 1905년의 태평동 여학교, 1906년의 진명여학교와 명신여학교, 1908년의 여자보학원의 교과목에 국문 또는 국어 과목이 포함되어 있던 것과 아주 다르다.<sup>58)</sup>

새로운 여성 인간형의 내용에서 구학의 지식과 교양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며, 동몽선습 태서신사 등 남학생 교과목과 동일하게 교육하고 남녀동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성여학교는 남녀동등에 입각한 교육이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1895년 7월에 공포된 소학교령<sup>59)</sup>의 교육방침과도 상통한다. 이는 1910년대 이후의 교육이 신학 중심임과 비교해 대조되는 부분이며, 전통을 무조건 부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교양의 대상을 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여성 전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층으로 한정하기 시작하는 1900년대 말 이후의 개념과도 차이가 있다.

찬양회의 여성교양 개념은 부정적 특수성 범주로 위치지어진 여성에 대해 인식하고 자각하며, 합리적 인간·이성적 여성으로 여성을 새롭게 개념 규정하는 동시에 다른 계층 계급의 여성들과 연대하여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인식주체, 자각주체, 실천주체로서의 면모를 지닌 것이다.

여성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88쪽) 이는 사실이 아니다.

56) 『제국신문』 1899년 2월 28일 잡보에는 ‘재봉’ 과목이 대표로 소개되고 있다.

57) 순성여학교 교과목을 소개하는 『독립신문』과 『제국신문』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독립신문』이 천자, 동몽선습, 태서신사를 언급하고 있음에 비해 여성계몽을 위해 소위 암신문이라 불리웠던 『제국신문』은 바느질 하는 법을 대표 교과목으로 소개하고 있어 오히려 여성계몽의 범위를 차등화 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58) 김재인 외, 앞의 책, 89쪽.

59) 소학교령은 소학교에 심상과와 고등과를 두고, 심상과 교과목은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를 기본교과목으로 두고 시의에 따라서 체조를 제하고 본국지리, 본국역사, 도서, 외국어를 추가할 수 있으며, 여아를 위해서는 재봉을 가한다고 되어 있다. 소학교령, 칙령 제145호. 이원호, 『개화기 교육정책사』, 문음사, 1983, 256쪽에 서재인용.

이들의 교양개념은 서구 문명사회를 수동적으로 모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학문과 전통을 배제하지 않는 구학 중심이며, 여성전반에 관해 언급하는 포괄적 범위를 설정하고, 동등권에 기초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적 특수성을 확인시켜 준다. 이는 서구의 근대적 교양 개념과도 다르고, 남성젠더의 여성교양 개념과도 다르다.

②는 여우회<sup>60)</sup> 회원들의 축첩반대 데모를 기억한 글<sup>61)</sup>이다. 50여명의 회원들의 축첩반대 데모는 첩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임을 확인시키면서, 고종에게 먼저 실천에 임하라고 요구한다. 물론 민비의 죽음 이후 엄귀인의 위로를 받으며 살고 있는 고종이 이를 허락할 리 없었다. 분명히 있었던 데모임에도 당시 신문에는 이 ‘사실’이 보도되지 않았다. 흥종만 옹의 기억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역사적 사실’로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sup>62)</sup> 일주일 이상 연속된 이 데모가 당대의 모든 신문에 한결같이 보도되지 않고 ‘사실’에서 제외하는 의도는 간단하다. 당대 ‘신문의 젠더’ 역시 남성이었기 때문이다.<sup>63)</sup>

③과 ④는 여성독자의 투고문으로서, 일종의 신문평론에 해당된다. ③은 여성의 개화의지와 국가경영 방법을 소신껏 펼쳐 보이고 있으며, ④는 첩으로서 예전의 첩 의식을 떨쳐 버리고 새로운 계층의식을 견지

60) 양성원과 함께 찬양회의 또 다른 이름으로 확인되었다. 박용옥, 앞의 책, 참조.

61) 이는 최은희 여사가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흥종만 옹(당시 22세)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라 한다.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 문의하였는데, 고종의 비답이 없어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한다. 최은희, 앞의 책, 67쪽.

62) 데모대가 여우회원이라는 소문이 와전되어, “덕수궁 앞에는 여우(狐)들이 둔갑해서 여편네로 변하여 날마다 대궐문 앞에서 수십명이 진을 치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졌고, 포덕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여우 나왔다.”고 수군거렸다고 한다. 위의 책, 67쪽.

63) 줄리아 우드, 한희정 옮김, 『젠더에 갇힌 삶: 젠더 문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1~510쪽. 여기서는 학교 커뮤니케이션, 조직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한 젠더 장치로 보고 있다.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도 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남성들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임을 일깨우고, 딸 가진 사람들에게 첩으로 주지 말 것과 여성들 자신도 첩이 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함께 연대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며, 남성들의 책임과 몫을 분명히 언급한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④는 여성교양에서 계급범주가 우선성임을 강조한 사례로, 여성의 계급적 차이에 따라 교양의 내포 및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④에서 여성교양은 ‘남녀 동등’ 이전에 ‘일반여성과 동등’해지는 것이다. 여성 내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반증 사례로, 이때의 새로운 보편성 추동이란 남성과의 관계에서의 보편성 이전에 ‘보편적 여성’에 포함되고자 하는 것이다.

⑤는 재판부에 청원한 내용으로, 당시 여성들의 고소 고발 사건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독립신문』을 비롯한 당시 신문에는 여성들이 재판부에 청원하였다는 기사가 상당수 보도되어 있다. 맹소사는 개가한 여인으로, 연좌법이 폐지된 세상에서 연좌법을 적용하는 관을 고발하면서 이를 바로잡고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여 줄 것을 개진하고 있다. ⑥은 토론회에서의 부인연설로, 남녀동등권에 입각하여 여성의 삶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는 것과 여성의 권리는 남자와 함께 이 세상을 잘 이끌어 나가는 수단임을 강조한다. 여기서도 여성 연대 뿐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연대까지 모색하는 특징이 드러나 있다.

위 인용문들에서 드러나는 여성교양은 인식주체, 자각주체, 실천(표현)주체로서의 여성의 자질과 능력, 지식을 의미한다. 여성교양을 말할 때의 ‘여성’은 능동적 타자여야 한다. 인식주체, 자각주체, 실천주체가 되려면 수동적 타자여서는 곤란하다. 여기서 보듯 여성교양의 내적 형식은 부정적 특수성 하의 여성이 능동적 타자로서 새로운 보편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분유<sup>64)</sup>를 실천하는 것이다. 타자가 타자로서 나누면서

젠더의 경계면을 노출시키고, 경계면의 경험을 나누고 연대하면서, 즉 분유를 통해 진정한 파트너십 문화는 창출될 수 있다.

1905년 이전에는 ‘문화적 동질감’이란 계기가 없어 실질적으로 ‘민족’이 없었다는 지적<sup>65)</sup>이 있으나, 분유의 필연성에 비추어 볼 때 젠더 불평등의 여성젠더에게는 ‘문화적 동질감’이 분명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새로운 보편성을 구성하고자 추동하는 능동적 타자인 여성젠더에게는 ‘국가’보다 ‘사회’가 심급임을 알 수 있다. 여성젠더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회 개념은 ‘억압 장소로서의 사회’ ‘풍속 개량의 장소로서의 사회’ ‘실천의 장소로서의 사회’였다. 여성젠더에게 사회란 민족 또는 영토 개념에 의해 요청된 것이 아니었다. 이때 사회의 개념은 국가와 배타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연관을 가진다. 억압, 풍속개량 등의 현안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요청되는 것인 동시에 국가적 현안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여성젠더의 여성교양은 남성젠더의 여성교양과 달리 국가주체, 국민주체로서의 성격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전략적 필요에 의해 채택된 것이었다. 이들은 국민주체이기보다 여성주체를 우선성으로 두고 있었으며, 남녀동등권이 핵심이었던 이러한 현상은 1905년까지 지속된다. 다시 말하자면 1905년까지 여성젠더의 여성교양은 현모양처와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sup>66)</sup>

64) 전유(appropriation)가 타자의 소유물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분유(partager, share)는 분할한 것을 따로따로 소유하지 않고 그렇다고 무언가 공동의 성질을 전제해 같은 것으로서 공유하지 않고, 분할하는 동시에 함께 가지고 타자로서 나누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를 타자로서 만나는 경험이다. 분유 개념에 대해서는 岡眞理, 앞의 책, 13쪽.

65) 권보드래, 앞의 글, 69쪽.

66) 김복순,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정』, 앞의 글, 참조. 현모양처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1905년 이후이다.



⑦은 여성젠더가 생각하는 여성지식과 여성교양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드러낸다. 여성젠더는 문명개화의 우선순위를 풍속개량에 두고 있다. 이는 남성젠더들이 학문과 지식 습득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다르다. ‘풍속을 개량한 후에야 학문과 지식을 발달할 용심이 생긴다’고 함으로써, 토대인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우선 동인으로 삼아 여성지식 및 교양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실생활인으로서 일상에서의 변화로 진정한 변화 여부를 판단하려는 여성들의 입장이 드러난다. 여성젠더에게 사회는 장기지속의 거대한 흐름의 장이었다. 젠더 불평등은 몇 백년 동안 장기지속되어 온 일종의 풍속이자 문화였다. 이를 아는 여성젠더에게 문명개화란 이념적 추상적이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일상’ 차원에서 확인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했다. 여성젠더의 풍속개량 우선순위는 남성젠더의 학문과 지식 우선순위의 근대화 전략을 비트는 것이다.

여성의 의복개량 방향 역시 철저히 일상생활과 연관되어 논의된다. 남성들이 번다함과 화려함을 지적하면서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한데 반해, 여성젠더는 의복을 개량함으로써 행동의 자유력이 확보된다고 하였으며, 이는 남녀교제와 경제의 편리를 가져다 주는 이점이 있다고 보았다.

위에서 보듯 새로운 여성 인간형으로서 능동적 타자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의식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문명개화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이미지 만들기 작업이 패션, 미용, 교제법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여성젠더는 자신들의 욕망을 패션, 미용 교제법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며, ‘꾸며진 자기’(fashioned self)는 ‘새로운 자기를 만들어 내고 싶은’ 여성 욕망의 다른 이름이다.

### 2.2.2. 파트너십 문화형식과 초대(Invitational Rhetoric)

여성젠더의 문화형식에는 새로운 보편성을 추동하는 파트너십이란 내적 일관성이 있다. 문화형식은 주로 남성들이 만든 것이었으나, 여성젠더의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독특한 파트너십 문화가 파생·접목되었다. 젠더 불평등을 현실에서 겪는 여성젠더는 남성들의 문화를 수동적으로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여성 연대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보편성을 추동하기 위해 창조적인 변형을 꾀하고, 능동적 모방의 차원으로 이끌어 갔다. 여성들의 참여의 장에는 부인회, 토론연설, 독자투고, 상소, 재판청원 등이 있다.

이들 파트너십 문화형식은 ‘초대의 수사학’이라는 독특한 수사학을 보여 준다. 이 수사학은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수용자(청중, 독자)의 생활, 경험, 지식수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관점으로서, 여기서의 ‘초대’란 ‘평등, 내재적인 가치, 그리고 자기결정에 뿌리를 둔 관계를 창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해에 대한 초대’를 말한다.<sup>67)</sup> 초대하는 화자는 의식을 일깨우면서(consciousness raising), 관점을 제공하고, 존경과 평등의 분위기 속에서 상대방의 관점을 드러내는 것을 허용하는 외부적 조건들을 창조한다. 이러한 초대는 여성이 그들의 문화에서 가지는 일반적인 지각과 감정을 강조하면서, 연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해 주고 ‘공유’를 중요한 가치로 불러들인다.

당대 파트너십 문화형식인 부인회, 토론연설, 독자투고, 상소, 재판청원 등에서 초대의 수사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검토해 보자. 우선 독자투고는 폐쇄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상류층 지배층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던 폐

67) S. Foss & C. Griffin, "Beyond persuasion: A proposal for on invitational rhetoric," *Communication Monographs*, 62, p.5.

쇄적 커뮤니케이션 시장이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화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에게도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었는데, 독자투고의 독자는 이전의 세책가에서 책을 빌려 보던 여성독자 또는 필사자인 여성독자와는 아주 다르다. 단순히 빌려다 보는 것에 그쳤던 독자들을 수동적 독자층이라 할 수 있다면, 필사자들은 자신의 취향과 욕망에 맞추어 부분적 개작 혹은 생략 첨가를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발산한 능동적 독자였다. 하지만 이들 양상은 모두 사적 차원에 한정되어 있었다.

19세기 후반의 능동적 타자로서의 새로운 여성 인간형의 독자투고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나름대로 활용하였다. 사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남성독자, 신문 편집진과 함께 공적 차원에서 새로운 담론을 구성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공공성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위의 세책가 여성독자와 질적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신문기사에 관한 자신의 입장 및 주장을 신문에 투고하여 나름대로 공적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었으며, 이를 실행함으로써 다른 사회 구성원과 함께 새로운 보편성을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실천하였다.

근대적 의미의 책 읽기와 문학독자의 존재방식이 1920년대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다면<sup>68)</sup>, 신문 읽기와 신문독자의 존재방식은 이미 1890년대에 형성되었고, 신문읽기로부터 비롯되는 문화적 개입도 이미 1890년대에 시작되었다.<sup>69)</sup> 독자투고는 신문 내용을 해독, 해석하는 과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신문평론 행위를 탄생시켰다. 이는 독자들이 평론행위

68)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03, 28쪽.

69) 당시 신문의 독자투고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적 개입이었는데, 이는 『독립신문』을 비롯한 당시 신문 모두에서 채택한 방식이었다. 『독립신문』은 창간 때부터 이미 독자투고를 게재하였는데, 독자투고의 양상 및 의미에 대해서는 서순화, 『『독립신문』의 독자투고 연구』, 충남대 박사논문, 1996, 1~251쪽.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고전여성문학연구』 제8집, 2004, 67~98쪽.

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재구조화 하고, 동시에 공적 영역을 재구조화 하려는 욕망의 실천이다. 신문은 풍속개량의 주된 수단으로써 근대적 교양·윤리 창출의 중요한 통로였다. 근대 국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신문독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자체였다. 남성논설을 평론하는 여성독자 투고는 남성들이 장악한 매체가 구성해내는 헤게모니적 담론에 틈새를 만들고 이의를 제기하는 중요한 실천행위이다. 한편으로는 여성 스스로 자신의 위치성을 확보하고 여성담론의 관점을 확인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 장에 그것을 유포시킴으로써 새로운 문화(보편성)를 만들고자 하는 문화적 개입 욕구를 분출하였다.

여성독자의 투고는 『독립신문』이 발간되기 시작한 때부터 행해졌다. 1897년 8월 21일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박소사’ 투고에서부터 여성들이 빈번히 활용한 파트너십 방법이었다. ③의 여성투고자는 ‘논설마다 절담’이라고 신문 편집진 뿐만 아니라 신문 주 독자층으로 예상되는 남성 독자를 칭찬하면서 시작한다. “남즈로 심세하야 충의가 업게드면 남즈라홀것잇소 남즈로싱겨터든 대장부스업호오 스업이라호는거슨 충효 의리웃듬이라”라는 언설을 통하여 여성투고자가 상정한 독자가 ‘남성’임이 드러난다. 이 여성투고자는 남성독자를 ‘초대’하여 ‘공유’의 장으로 불러내고 “우리 우매한 여자들도”라는 표현을 통하여 상호소통의 장을 만든다. 이러한 수사학은 남성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초대’받았다는 느낌이 들도록 배치하는 효과를 창출하며, 따라서 그 이후 진행되는 여성투고자의 언설에 귀 기울이도록 만드는 수사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여성상소에서든 나름대로 초대와 수사학이 전략으로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초기에는 여성들의 상소가 줄을 이어 행하여졌다. 위예문 뿐 아니라 이승만 부인의 상소<sup>70)</sup> 등 여성들의 상소가 상당히 빈번

70) 1899년 1월 9일 이승만이 고종폐위 음모 혐의로 체포되어 수감된 사건이다. 박용욱, 앞의 책, 57쪽.

하였다. 상소는 원래 관료와 지식인층의 전유물로서 남성들만의 정치적 의사소통의 장이었다. 여성들이 상소형식을 채택하였다는 것은 남성젠더의 전유물이었던 정치의 장에 여성젠더들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는 뜻이 된다. 여성들의 상소는 의사소통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한 단면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더구나 상소는 법의 동등성에 동의하는 행위로서, 법이 국가내부의 동등성을 보장하며 남녀 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법이 공평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뒷받침 되어 있다.

찬양회 회원들의 경우 『여학교 실시통문』을 돌린 후 확실하게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고종에게 상소를 올린다. 같은 내용임에도 상소의 문구는 그 표현이 상당히 수정되어 있다. ①의 『여학교 실시 통문』에서도 “우리 성상 폐하의 외외탕탕하신 덕업으로” 등의 외교적 수사가 나오지만, 상소문에 오면 “우리 폐하의 신민된 자” “소이로 신첩 등이 찬양회를 실시호와 충익 이끄를 규중으로부터 일국이 흥왕케 하라 호오나…감히…갑히 통촉호오서…신첩 등은 이문호압나나”<sup>71)</sup>라 하여,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낮추어 상대방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월성을 부여하여 ‘초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칭찬하여 ‘논의의 장에 쉽게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여학교 실시 통문』이 그간의 여성의 역사를 넘어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에 비해, 이 상소문은 ‘충애지심’, ‘문명지학’, ‘일국’이란 단어, 즉 국가, 황제와 관련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나라의 입장’을 강조하는 수사적 전략을 펼친다. 따라서 상소문에서는 여성의 그간의 고통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기술된다. 『통문』은 메시지 ‘내용’에 초점이 있다면, 상소문은 메시지의 내용보다 ‘대화자 사이의 감정과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여성들이 채용하는

71) 『매일신문』 1898년 10월 13일.

언어사용의 수사학이다.<sup>72)</sup>

구어체로 전달되는 ‘우리’ ‘신첩’ ‘너즈들’ ‘감히’ ‘통촉’ 등은 고종을 공유의 장으로 불러 오는 일종의 ‘초대의 수사학’이라 볼 수 있다. 남성젠더의 ‘우리’가 인간 모두를 지칭하는 남성 통칭어이거나 혹은 주로 남성들, 또는 동질적인 계층 집단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면,<sup>73)</sup> 여성들이 사용하는 ‘우리’는 여성계층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들의 ‘우리’는 여성과 다른 계층, 또는 여성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합칭하거나 지칭하기 위한 수단이다. 위에서 본 ‘우리 여자들도’도 남성 뿐 아니라 여자도 ‘함께’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남성들의 ‘우리’가 조사 ‘가’ 또는 ‘은’을 동반하는데 반해, 여성들의 ‘우리’가 조사 ‘도’를 동반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지위가 열악한 여성들은 자신들 이외의 대상을 포섭하여 우리라는 공동의 장을 형성하고, ‘우리’를 통해 공동체의 파토스를 드러내면서, ‘감히’ ‘통촉’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우월적 지위를 확인시켜 공유의 장으로 유인하는 수사적 전략을 활용하였다.

통상회라 불리웠던 토론회는 초대의 수사학과 ‘형식’적으로도 연관된다. 독립협회는 새로운 공론장으로 통상회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찬양회 부인들도 이 토론회에 참여하여 자주 토론을 벌이곤 하였다. 토론에서의 부인연설은 1896년 11월 24일자에서부터 소개되어 차츰 그 참여기회가 증대하는데, 처음에는 좌의와 우의에 남성을 배치하고 여성

72) 여성의 대화 목적과 규칙은 남성과 다른데, 유대관계와 대등관계에 입각해 공감과 친교성을 목적으로 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테보라 태넨, 정명진 옮김, 『남자를 토라지게 하는 말 여자를 화나게 하는 말』, 한언, 1~320쪽; 줄리아 우드, 『젠더에 갇힌 삶』, 앞의 책, 152~187쪽.

73) “세상에 불쌍한 인성은 조선 녀편네니 우리가 오늘날 이 불쌍한 녀편네들을 위하여 조선 인민에게 말하노라” (『독립신문』 1896년 4월 21일 논설, “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느니…우리 주의를 미리 말씀하여…우리 신문은…”(『독립신문』 1896년 4월 7일 논설)

에게는 추가연설 기회만 부여하다가<sup>74)</sup> 찬양회 조직 후에는 일요일마다 정기집회를 개최하고 토론회를 열었다.<sup>75)76)</sup> 1905년 이후 여자교육회에 이르러서는 좌의 우의를 모두 여성들이 참여하여 담론층을 확실히 형성하게 된다.<sup>77)</sup>

토론은 소수 엘리트 계층 중심의 문자 커뮤니케이션에 ‘타자화 된 계층의 구화 커뮤니케이션’을 접목시킨 것으로서, 소수 지배층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의 불균형을 깨는 상징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토론은 정·관 주도의 상명하달식 ‘개화’가 아니라 타자화 된 계층의 적극적인 문화개입이 보장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즉 ‘19세기 말의 토론’은 문자문화 커뮤니케이션의 수정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탄생이

74) 최초의 여성연설자는 1898년 1월 4일자에 기록되어 있다.

75) 『제국신문』 1898년 10월 12일 잡보.

76) 찬양회 부인들에 의해 여학교 실시통문이 들고, 여학교 실시 운동이 벌어지던 때는 소위 ‘계몽의 공백기’로 불려지던 시기(1899-1904)년의 초입이었다. 물론 여학교 실시 통문은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독립신문이 폐간되기 전이었지만, 이들의 해산과 폐간이 고종황제에 의한 대정치공세(舊本新參)에 의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소위 계몽 공간의 변화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하지만 이 시기를 과연 계몽의 공백기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논자에 따라서는 ‘광무정권에 의해 주도된 또 다른 형태의 계몽’(박주원, 『1900년대 초반 단행본과 교과서 텍스트에 나타난 사회 담론의 특성』,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2006, 121쪽)라고 보기도 하나 그다지 실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여성젠더의 여성담론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이 시기는 여성젠더의 목소리가 사회 전면으로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독립협회의 도움을 받으며 초기 활동을 펼쳤던 찬양회를 비롯하여 앞에서 본 축척반대 시위, 각종 상소들, 재판청구 행위, 풍속개량 논의들은 거의 이 시기에 전폭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 즉 남성담론에서는 계몽의 공백기였던 이 시기가 여성젠더의 담론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성인식 및 실천의 확대의 장이었다. ‘젠더’를 배제한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를 계몽의 공백기로 해석하는 것은 ‘역사에서 젠더를 소거’하는 시각이며, ‘사실’을 소거 또는 재배치하는 일종의 담론형태라 할 수 있다.

77) 박용욱, 앞의 책, 87~90쪽의 ‘연설 토론 및 의안 일람표’ 참조.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처럼 토론은 타자화된 계층의 세계관이 반영된 커뮤니케이션 형태로서 타자화된 계층의 취향을 반영하고 만들어 내는 중요한 도구이다. 즉 토론은 근대적 교양을 욕망하는 능동적 타자들이 선택한 지적이며 창조적인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다. 이는 전 시대와 다른 삶을 찾는 일종의 모험이며, 새로운 보편성을 구성하기 위한 실천이다. 개인적 묵독 형태의 독서와 다른 공동체적 커뮤니케이션 양식으로, 대중의 개화에 대한 열망과 공동체적 유대감의 정념을 불러 일으키는 쌍방 소통형의 강력한 자장을 띠고 있다. 토론은 타인 지향성을 기본정신으로 갖는 쌍방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다. 과거처럼 힘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토론 구성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민주적 설득을 벌이는 차원의 새로운 공론장이다. 토론은 설득의 하위범주로서 논리적 설득을 구사하는 형식이지만, 여성토론은 ‘설득을 넘어’ ‘의식을 일깨우며’ ‘여성의 관점’을 청중에게 ‘초대’하고 토론자의 관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가(家)로부터 받은 교육에 따라 사는 것을 선이라 생각했던 전통 지형형 인간에서부터, 자신의 신념을 내세우는 파토스적 인간으로 등장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당대 신문의 논설과 잡보란에는 토론회에 접한 참여자들의 서구적 교양과 지식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 등이 끊어 넘치는 학습의욕, 모방 충동과 함께 인상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신문기자들도 “감복이 녀이더라...사름들이 모도 흙탄들 햏며...그럿케들 홉 줄은 일즉히 뜻햏지 못햏였는지라” 등의 감탄과 치사, 흙모 등의 파토스를 불러 일으킨다고 거듭 전언하였다(『독립신문』 1898년 9월 28일 잡보). 그들은 새 시대의 미래상을 염원하면서 끊임없이 고무되고 격려받으며, 아버지 세대의 중세적 교양을 청산하는 동시에 여성교양의 확보를 세대의식으로 공유하며 실천의 장에서 전개하였다.



토론이나 투고, 상소, 재판신청이라는 상호교류의 참여형식을 통해 여성젠더는 타자와 자기를 동시에 발견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새로운 보편성 구성을 추동하였으며, 부정적 특수성으로 인식되었던 당대 사회의痴, 愚, 醉, 狂<sup>78)</sup>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국가가 아니라)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상호교류의 참여양식으로서 초대의 수사학은 그들이 채택한 소중한 파트너십 전략 중 하나였다.

### 3. 맺는말

이상에서 검토한 바, 젠더별 시선의 차이는 일상 속에, 담론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었다. 차이는 도처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차이를 차이로 보지 못하는 한 어떤 ‘사실’의 확인에도 근접할 수 없다. 역사의 올바른 구성도, 새로운 공존도 불가능하며, 새로운 보편성의 구성도, 진정한 파트너십 문화도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차이는 오히려 21세기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특정 젠더에 편향된 담론의 이데올로기 및 젠더 장치를 바꾸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담론적 실천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다양한 전략 중 하나이다.

새로운 문화론의 계보 중 하나는 페미니즘 인식론을 이념적 토대로 하고, 여성교양을 핵심 문화자본, 상징자본으로 삼아 새로운 보편성 구성의 파트너십을 창출하는 패러다임이다.

교양(culture, Bildung)이 사회의 동력으로서 사회 구성원이 갖는/요구되는 힘이지만, 서구의 근대적 교양개념에 여성젠더가 소거되어 있다는 점에서, 페미니즘 시각으로 교양/여성교양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

78) 박영효, 앞의 글, 15쪽.

젠더 불평등 상황 및 구조, 젠더의 배치과정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젠더장치가 역사적 시대적 국면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세계사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남성/여성 젠더별 여성교양의 내적·외적 형식으로 나누어 각각의 담론관계성을 검토하였다.

근대초기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이 남성 중심적 보편성 하의 긍정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여성젠더의 여성교양은 부정적 특수성에서 새로운 보편성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들 젠더별 담론의 차이는 내적·외적 형식의 차이와 함께 담론관계성을 형성하면서 상호 교섭, 저항하는 길항관계를 드러낸다.

남성젠더는 여성을 가정관리자, 어린이교육의 주체, 제도로서의 주부로 호명하였지만 가정 내적 존재로 위치성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남성젠더의 여성교양은 ‘생활’에 필요한 보통 지식과 기능, 유신의 학문과 여공, 부덕순철, 등 여성교양과 지식을 가정 내적으로 한정하여 주거, 음식, 위생, 양로 등으로 구체화 하였다. 남성의 우월성과 지배자로서의 위치는 굳건히 하면서, 조선시대와는 달리 여성 전반을 하위 파트너로 인정하였다.

남성젠더의 구별짓기를 통해 여성교양과 지식은 남성교양과 지식의 보편성을 획득케 하는 타자로 젠더화 되었다. 서양과의 관계에서 타자화된 한국 남성 지식은 한국 여성을 자신의 타자로 삼아 ‘남성으로 재젠더화’ 하였다. 남성의 재 젠더화 과정은 여성의 이중 젠더화 과정이기도 하다. 남성젠더는 ‘아유’를 통해 ‘제국주의적 자기’를 구성하였다. 이 제국주의적 자기의 감각은 가부장적 감각이었다.

19세기 말 한국 사회에는 자신의 존재의 실체를 해명하고 인식주체, 자각주체, 실천주체로서 주체형성을 도모하는 ‘새로운 여성 인간형’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중세적 여성교양이었던 ‘부덕’의 개념을 재배치하

며, 동시대 남성젠더의 ‘현모’ ‘현모양처’ 형식과 다른 주체형성을 도모하였다.

여성젠더는 젠더, 민족, 인종, 국가 별로 부정적 특수성 하의 여성의 위치성을 확인시킨 후, 이러한 부정적 특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보편성 범주를 설정하면서 그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여성젠더의 여성교양은 국민주체가기보다 여성주체를 우선성으로 하였으며, 남녀동등권이 핵심이었다. 1905년까지 여성젠더의 여성교양은 현모양처와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 여성젠더의 여성교양은 합리적 인간·이성적 여성으로 여성을 새롭게 개념 규정하는 동시에 다른 계층 계급의 여성들과 연대하여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인식주체, 자각주체, 실천주체로서의 면모를 지닌 것이었다. 여성교양의 내적 형식은 부정적 특수성 하의 여성이 능동적 타자로서 새로운 보편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분유’를 실천하는 것이었으며, 분유를 통해 진정한 파트너십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여성젠더의 파트너십 문화형식으로는 부인회, 토론연설, 독자투고, 상소, 재판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초대의 수사학’이라는 독특한 수사학을 보여 준다. 상호교류의 파트너십 문화형식을 통해 여성젠더는 타자와 자기를 동시에 발견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새로운 보편성 구성을 추동하였다. 초대의 수사학은 그들이 채택한 소중한 파트너십 전략 중 하나였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중세적 교양 개념의 의미를 천착하는 일과, 근대초기의 여성교양이 1910년 이후 보편성과 특수성을 재배치하며 구체적으로 구성되는 과정과 지배담론과의 길항관계를 검토하는 일이다. 어느 것 하나 지난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담론들 간의 관계성은 결국 억압을 조금씩 해소해 가는 실천을 이끌어 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 □ 참고문헌

### 1. 자료

『독립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여자기념』, 『가정잡지』, 『자선부인회 잡지』.

유길준, 『서유견문』, 일본, 交詢社, 1895.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개화기 학술지 총서 1-20』, 아세아문화사, 1978.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 1-10』, 아세아문화사, 1977.

시모다 우타코, 박정동 역, 『신찬가정학』, 우문관, 1907.

현공림 편, 『신정가정학』, 유일서관, 1913.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편, 『한국여성관계자료집 근대편 상』, 이화여대출판부, 1979.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편, 『한국여성관계자료집 근대편 하』, 이화여대출판부, 1984.

황현, 임형택 외 옮김, 『매천야록 상하』, 문학과 지성사, 2005.

### 2. 단행본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김재인 외, 『한국여성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박용옥, 『한국여성 근대화의 맥락』, 지식산업사, 2001.

윤혜린 외, 『여성주의 리더십』, 이화여대 출판부, 2007.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4.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2006.

장남호 외, 『화혼양재와 한국근대』, 어문학사, 2006.

전미경, 『근대계몽기 가족론과 국민 생산 프로젝트』, 소명출판, 2005.

최은희, 『한국개화여성열전』, 정음사, 1985.

최재서, 『교양론』, 박영사, 1963.

-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 외 옮김, 『문화이론』, 길, 2007.
- 그랜트 매크래켄, 이상률 옮김, 『문화와 소비』, 문예출판사, 1996.
- 레이먼드 윌리엄즈, 나영균 역, 『문화와 사회』, 이화여대 출판부, 1988.
- 매슈 아널드, 『교양과 무질서』, 한길사, 2006.
- 조안 핑켈슈타인, 『패션의 유혹』, 청년사, 2007.
- 줄리아 우드, 한희정 옮김, 『젠더에 갇힌 삶: 젠더 문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 티모시 보셔스, 이희복 외 옮김, 『수사학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岡眞理, 『彼女の '正しい' 名前とは何か』, 青土社, 2000, 2002.
- L. Rakow & L. Wackwitz, *Feminist Communication theory*, Sage, 2004.
- Foss & Foss & Griffin, *Readings in Feminist Rhetorical Theory*, Sage Publications, 2004.

### 3. 논문

- 고정갑희, 「성장치와 여성주의 문화론」, 『여/성이론』 제2호, 여이연, 8~31쪽.
- 김복순, 「페미니즘 시학과 리얼리티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제32호, 2006, 243~282쪽.
- 김복순,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정」,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제22차 동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2007, 97~113쪽.
- 박홍규, 「교양과 교양교육의 의미」, 『인문연구』,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5, 77~105쪽.
- 아라키 마사즈미, 「자조에서 교양으로」, 『일본문화연구』 제4집, 2003, 159~179쪽.
- 윤지관, 「Matthew Arnold의 비평연구: 교양이념의 현재적 의미」, 서울대 박사논문, 1993, 1~283쪽.
-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고전여성문학연구』 제8집, 2004, 67~98쪽.
- 홍인숙, 「여학교 주변의 여자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3집, 2006, 103~135쪽.

**Abstract**

## Formation of Woman's Bildung in the Early Modern Period and the Geneology of Partnership Culture Theories

Kim, Bok-soon

Partnership is required in 21st century. Leadership is based on 'centered- universality', but partnership pursues constitution of new universality. Geneology of new culture theories is based on feminist epistemology and it is paradigm that creates partnership using Woman's Bildung as central element.

In the idea of western Bildung, woman is exempted. Concerning in Bildung/woman's Bildung with feminist view is checking current biased, unfair gender.

Woman's Bildung in man's gender is to admit positive particularity in male-centered universality, woman's Bildung in woman's gender is a dynamic movement to constitute new universality from negative particularity.

Woman's Bildung in man's gender is restricted on tutor at home or housekeeper, and woman's knowledge and Bildung were gendered. Man's gender reveals patriarchal sense of 'Imperialist Self'.

However, woman's Bildung in woman's gender gives 'activity' to others. There are many culture types of feminist partnership such as women's group, debates, speeches, newspaper contribution, Rechtsmittel, Judgement, and they are based on invitational rhetoric.

**Key words** : partnership culture theory, new universality, woman's Bildung, children's Bildung, positive particularity, negative particularity, gendered everyday life, Imperialist-Self, 分有, 我有, Chanyanghoi, positive other, invitational rhetoric, feminist rhetoric

- 본 논문은 4월 15일 투고되어 5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5월 2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